

# 화순시네마 재개관...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문화격차 해소·경기 활성화 도움  
2018년 설립 이후 군 지역 전환  
현장 대면·키오스크 비대면 발권  
관람료 6000원·65세이상 5000원

지난 6월 말 잠정 휴관에 들어갔던 화순시네마가 지난 14일 다시 문을 열었다. 화순시네마가 재개관되면서 대도시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영화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시네마는 이번 재개관을 통해 2018년 설립된 이후 처음 화순군 지역 체제로 전환됐다.

시네마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위·수탁 관리를 맡아 운영했으나 수탁자의 부실 운영 등으로 휴관을 맞게 됐고 이로 인해 화순군민들은 문화생활 향유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화순군은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임시적으로 직접 운영 방

식을 채택하게 됐고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인허가 사항 및 준비 사항을 갖춰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영화관 매점 운영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9월 말경 재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네마의 영화 예매 방법은 현장 대면 발권 및 키오스크 비대면 발권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순시네마 디트릭스(www.dtryx.com)' 사이트를 통해 PC·모바일 예매도 가능할 예정이다.

일반 관람료는 6000원이며 청소년, 군인,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강삼영 화순군 문화예술과장은 "시네마 재개관 추진을 통해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인근 타 지역까지 나가야 했던 화순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타 지역에 갈 여력조차 힘들었던 문화 소외계층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단속  
장흥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장흥군은 개학기를 맞아 최근 장흥경찰, 장흥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청소년 출입·교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미부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지 미부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요소들을 사전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청소년 탈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 단속과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및 지역 변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수시로 운영 중에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 실시  
보성군,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보성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벌교 태백산맥 꼬막거리에 위치한 꼬막 전문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식품 위생 담당 공무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 맞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주요 컨설팅은 △식품 검수 및 보관 △식재료 전처리 △조리 공정 및 시설 청결 여부 △법적 서류 비치 및 개인위생 △조리 기구 세척 및 관리 등이다.

컨설팅단은 대상 음식점에 어패류와 관련된 식중독 위험성을 강조했으며 식품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컨설팅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정이 문화관광과장은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조리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공정 계약·무관용 원칙 확립 약속  
신안군, 용역업체 청렴서한 전달

신안군은 최근 1000여 개의 공사·용역 계약업체에 청렴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렴 서한은 공사 계약 업체에 행정 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공사 계약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의 협조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렴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신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안군은 공사 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안군은 소속 공직자에게도 청렴서한문을 보내 신뢰의 밑바탕이 되는 청렴과 공정에 대해 강조하며 관행적 선물이 금품과 향응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청렴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나주시 관계자가 재난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나주시가 재난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직접 교육 현장으로 달려간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

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8월부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참여기관 모집·홍보에 나섰으며 이날

부터 가람어린이집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보건 안전 등 4가지로 유형별 안전 수칙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재미와 흥미를 더할 계획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고흥군, 녹동장어거리 활성화  
이유석 셰프 어린이 메뉴 개발

고흥군은 지난 10일 지역 장어 음식점 주들이 모인 가운데, 전문가 이유석 셰프가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어요리를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연에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푸드트럭과 연계할 수 있는 장어메뉴와 고흥의 신선한 재료 사용이 강조되었으며 축제 등 다양한 고흥 관광 행사와 연계한다면 향후 고흥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연 후에는 이유석 셰프가 직접 음식점주들에게 레시피를 전수하고, 메뉴 개발에 필요한 조리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장어고로케와 장어야끼는 비교적 쉬운 조리 방법과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접근성과 상품성이 뛰어난 메뉴로서 업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녹동장어거리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 푸드트럭 메뉴 반영 등 고흥 관광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진행한 이유석 셰프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회사인 '오뚜기'의 마스터셰프로 활동 중이며 포브스코리아 한국의 젊은 파워리더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송민섭 기자



지난 12일 보성군이 녹차골향토시장에서 'BS청춘마켓' 문을 열었다.

보성군 제공

## 보성군, 녹차골향토시장 'BS청춘마켓' 문 열어

젊은 트렌드 콘텐츠 선배

보성군은 지난 12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BS청춘마켓'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BS청춘마켓'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희 공간에 MZ 세대의 감성을 담은 △그린리주얼(천연 비누 및 친환경 제품), △이름(네일·페디, 속눈썹 연장·뽀) △로라스토리(핸드메이드 소품) △음차(천연 원석 수공예 액세서리) △땡냥땡냥(애견용품 및 수제 간식) △아이엠부각(녹차 부각·식혜) △

공감지구력(목공·소품) 등 총 7개의 점포가 입점한 쇼퍼지이다.

이날 개장식은 '다카포아리아'와 '보성군립국악단'의 풍성한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BS청춘마켓' 경과보고, 환영사, 입점 업체 소개, 테이프 커팅식, BS청춘마켓 장보기, 청년 버스킹팀 '라벨'의 식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석 대목장을 맞아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2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BS청춘마켓 청년 창업자들의 힘찬 소개 인사는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새로운 시장 공간에 대한 기대감

을 한층 높였다.

젊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맛과 문화 콘텐츠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보인 만큼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개장 기념 9월 한 달간 할인 및 상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년 창업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S청춘마켓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